

제8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8학년도 8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8.02.08.(화) 16:30-18:00
		장소	K동 206호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안 논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8차 등심위 개회를 선언 함. 요구사항에 대해서 등심위 위원들과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한다고 함. - 위원장: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한 후, 서면으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획관리처장이 설명하겠다고 함. - 기획관리처장 : 기본역량진단에서 1단계 점수가 75점으로 책정되어 있고 2단계 점수가 25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함.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평가는 받지 않으며, 최근 3년간(2015~2017년도) 계획 대비 성과가 이번 평가의 주안점이라고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설명하였다고 함. 정량평가 부문에서는 우리대학을 포함하여 각 대학들 간에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대신, 이번 평가의 핵심은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지표점수에 포함되는 것들 중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특성화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함. - 기획관리처장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400쪽 정도의 분량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서면자료를 전달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기획관리부장 : 대학알리미에 3~4쪽 요약본이 등록되어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핵심내용만 전달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기획관리처장 : 보고 싶다면 총학생회장이 찾아오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정성지표에서 구성원 참여소통 같은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만 들어가는지 질의함. 		

- **기획관리처장** :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생, 교수, 직원이 포함되고, 교학협의회와 교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산업체, 졸업생, 학부모의 의견수렴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수업 교육과정 운영계획에서 강의 적절성이 무엇인지 질의함.

- **기획관리처장** : 1주기 평가에서는 소규모 강의의 강의당 학생수 기준이 20명이었는데, 2주기 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이 바뀌어서 60명으로 바뀌었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자율전공 입학 정원이 늘어서 수요조사 등의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하고, 작년 같은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함.

- **기획관리처장** : 서울은 자율전공이 줄었고, 세종은 늘었다고 함. 전공선택은 학생의 선택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함. 대책으로 자율전공 모집 시에 공학계열과 인문계열로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교강사 추가 채용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함.

- **기획관리처장** : 계속 신입교원 면접을 진행하는 중이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뽑기 위해 노력한다고 함. 다만 자격요건이 되는 교강사를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학과의 요청대로 모두 충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상대평가 여부가 대학기본 역량진단에 포함되어있는지 질의 함.

- **기획관리처장** : 학점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에 포함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취업률 여부에 창업률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함.

- **기획관리처장** : 대학평가는 여러 군데서 주관 하는데, 평가마다 포함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고 함. 대학기본역량진단에는 창업률이라는 지표는 없고, 정성평가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평가한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제2기숙사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함. 새벽에 6,7,8층에서 화재경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층장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을 했지만 출구(1층, 지하1층, 지하 2층)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함.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 인데 방재실에서 기계오작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동 개폐시스템을 꺼버렸다고 함. 학생들은 사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함. 통금시간으로 인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의 우려와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제2기숙사 안전문제가 학생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작동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공지와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함.
- **위원장**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와 관련해서 기숙사 통금 시간이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함. 현 기숙사 운영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학생들이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외부에서 문이 열릴 때 까지 시간을 보내야한다고 함. 이 때문에 학생들은 홍대 주변이 가지는 특성 상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타 학교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통금이 없는 대학도 있다고 함. 이 때문에 통금 조절 등 융통성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제3기숙사비가 고지가 되었는데 의문이 드는 점이 학교에서 감안한 교통비가 18~19만원 정도였었는데, 실제로는 12만원 정도가 차감이 되었다고 함. 또한 후생시설에 대한 공지가 없었고, 그로 인한 비용적인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 **학생처장** : 재무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교통비로 계산해서 12만 6천원을 공제한 것이고, 제2기숙사를 준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학교 측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교통카드 사용 시 금액 왕복 1,800원 * 3개월 해서 18만9천원을 차감한다고 되어있다고 함.
- **학생처장** : 왜 차액이 생긴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지만 기숙사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었고,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숙사가 주변 자취방 시세보다 사실적으로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함.
- **위원장** : 기숙사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함.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식당운영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관재팀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함. pc실, 열람실,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함.
- **관재팀장** : 제3기숙사의 경우 지리적으로 학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숙사들에 비해 들어간 비용이 많고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함.
- **학생처장** : 현재로선 적자의 상황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위원님들에게 학교 기숙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 한다고 함.
- **위원장** : 통학이 어려운 타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그 부분에도 동의하지만 본인은 학교 기숙사의 본질적 목적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함. 청년담론에서 주거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홍익대학교 제3기숙사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며, 기숙사 존재 목적이 학생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함.
- **위원장** : 교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기숙사생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한다고 함. 또한, 학교가 형평성을 주장할 때가 매우 많은데, 그 형평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J,B동이 가건물이 아니라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 함.

- **위원장** : J, B동이 낮은층이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생들의 편의 및 무거운 짐 운반 등을 고려하여 J, B동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 함. 엘리베이터 관련된 문제는 9차 등심위 문제에서 학교에 답변을 들을수 있는지 질의함.

- **위원장** : 9차 등심위에서 답변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알아본 결과, 외국인의 경우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1,000여명 정도 되는데 우리학교의 외국인 학생회는 정식자치기구가 아니라 소모임 정도의 위상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외국인 등록금도 증가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와 같은 정식 기구가 생겼으면 한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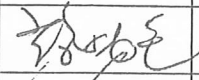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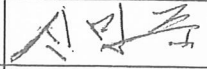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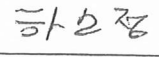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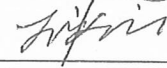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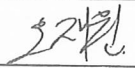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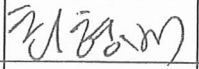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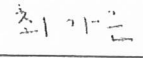
- **(서울)총학생회장** : 외국인은 특수한 집단이며 전체를 대표하기 힘들다고, 지난 등심위에서 학교위원이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총여학생회도 홍익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회원이 아님에도 2014년까지 존재하고 있었으며, 단과대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학생이 아닌 그 단과대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함. 이에 대해서 올해 유학생 학생회의 정식 자치기구 편입을 논의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외국인 등록금,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을 국제 교류본부로 부터 들은 외국인 인원수 및 2017년 대학 알리미 대학원생 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서울캠퍼스의 경우, 입학금 수입이 약 4억 감소, 세종의 경우 약 2.2억 감소인 반면 외국인 등록금 2.9억 증가, 대학원 등록금 6.6억 증가해서 수입 증가분이 9.5억으로 예상한다고 함. 입학금 감소로 인한 외국인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라고 했었는데 수입 증가가 3.3억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외국인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은 불합리하다고 함.

- **위원장** : 인상 요인에는 물가 상승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함.

- **기획관리처장** : 학부의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외국인과 대학원생들은 인상에 대하여 그렇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함. 대학원생 대부분이 TA장학금 50%의 수혜대상이 된다고 함. 특히 공과대학이나 과학기술대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함. 외국인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크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함.

- **(서울)학생회장** : 흥익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인원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기획관리처장** :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 **(서울)학생회장** : 대학알리미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미술대학, 공과대학, 문화예술경영대학 순으로 많다고 함. 연구과제를 진행하지 않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이들도 TA(Teaching assistant)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며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함. 본질적으로는 현재 대학원생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생각함. 이미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등록금 인하요인은 12.5%에 달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이 감가상각비와 적립금에 관한 것인데, 그 구체성이 모호하다고 함. 약 180명 학생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적립금 적립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68.2% 이라고 함. 이 적립금 사용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인원은 92.2%라고 함. 현재 학생들을 위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함. 적립금사용계획 설명회 개최에 찬성한 비율이 92.2% 이라고 함.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서울캠퍼스와 함께 논의 한다고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길 원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되었다고 하니 유감이라고 함.
- **(서울)학생회장** : 등록금을 정하기 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런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형식상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함. 지속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 파행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 **위원장** : 제 9차 등심위는 2018.02.12.(월) 3시 세종캠퍼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함.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위원	위원장	황 병 돈		위 원	신 민 준	
	위 원	고 경 호		위 원	하 소 정	
	위 원	김 중 인		위 원	오 재 원	
	위 원	최 형 배		위 원	최 가 은	
	위 원	심 재 익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8명	불참	1명
작성자	재무팀 간사 이승용		작성년월일		2018.02.14	